다산포럼

다산의 일본론

강 명 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조선 후기 문집을 읽다 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을 이따금 접하게 된다. 허목(許穆)의 '흑치열전'(黑齒列傳)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덕무(李德懋)의 '청령국지'(蜻蛉國志)는 상당한 분량의 일본 연구서다. 이익(李瀷)은 '일본지세변급격조선론'(日本地勢辨及擊朝鮮論) '왜구시말'(倭寇始末) '일본사'(日本史) '왜환'(倭患) 등의 중요한 비평문을 '성호사설'에 남기고 있다. 정약용도 '일본론'이란 이름의 논문 2편을 남기고 있다.

이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역시 다산의 '일본론'이다. '일본론'의 요지는 일본의 침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산은 어떤 논리로 일본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던 것인가. 그는 일본의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오규 소라이(荻生徂來)·다자이 슌(太宰純)의 저작을 읽고 일본이 문명화되었으므로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이 16세기 말까지 중국의 연안 지방을 침입하여 노략질을 그치지 않았던 것,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던 것은 그들이 문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산은 이토 진사이를 비롯한 빼어난 유학자를 배출할 정도로 일본이 유교에 의한 문명화를 경험했기에 임진왜란 이후 자신의 시대까지 2세기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장구한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요컨대 유교적 문명화는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이 다산의 논리다.

다산은 왜 뜬금없이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두고 논문을 썼던 것인가. 임진왜란의 종식 이후 다산의 시대까지 거의 2세기에 걸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식인들은 이 장구한 예외적 평화의 원인이 궁금했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산의 '일본론'은 이런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인 셈이다.

하지만 다산의 판단이 썩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9세기 말 이래 일본이 한국에 그리고 중국에 한 패악(悖惡)을 떠올리면, 다산의 유교문명론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 결여된, 물정 모르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 그보다는 일본은 조선의 배후에 있는 청(淸)이란 거대한 제국을 의식하기에 조선을 침공하지 못한다고 했던 성호(星湖)의 생각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하지만 '유교'를 떼어 내면 다산의 문명론이 작금의 일본의 행태를 해석하는 데 무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세기 한국인에게 일본은 극복의 대상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일본은 19세기 말 이래 한국이 배워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9년 현재도 그럴까. 우익 정당인 자민당의 장구한 일당 지배! 그래서 제대로 된 정권교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자신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를 한사코 부인하는 나라, 평화헌법을 걷어차 버리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정치 세력을 비판하거나 제지할 강력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무엇이라 불러야 될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의 일본은 한국이 배워야 할 문명의 상태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산은 일본이 유교에 의한 문명화를 경험했기에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나는 오늘날 일본이 비문명(非文明)의 상태에 있기에 한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남북 갈등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올 조짐이 보인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일본은 작금 무역 보복을 통해 한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참이다. 이 갈등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본의 가련하기 짝이 없는 비문명성(非文明性)을 통찰하고 의연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촛불 혁명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한 문명한 사람들이 아니던가.

교단에서

산을 넘는 등굣길

김 진 구
일산중 교감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 여름 방학을 한다. 걸어서, 승용차로, 카풀로 붐비던 등굣길은 멈추고 학생들은 각자 다른 길들을 경험할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시계의 지배를 받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교사와 학생은 방학과 묶여 있는 학기 단위의 생활이다. 1, 2학기 각 학기별 교육 성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1학기를 마치면 그때서야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고 느낀다.

일곡 지구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뒷산 한새봉에 인접해 있다. 산벚꽃이 흩어지고 나면 늦봄 꿩소리가 들려오는 좋은 배움터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서 한새봉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걸으면서 그날 처리할 사안들을 정리해 보는 정제의 시간이기도 하다. 스타카토로 끊어지는 고음의 뻐꾹 소리와 안개비 같이 가라앉은 산비둘기 울음이 아침 향연을 펼친다. 가는 나무 가지를 타거나 잽싸게 건너뛰는 청설모의 묘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기도 한다.

한새봉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안면이 없는데 큰소리로 안부를 묻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지팡이에 의지한 힘겨운 산행도 있고, 부부가 한마음으로 걸어가는 동행도 눈에 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를 설레게 하는 만남은 한새봉을 넘는 등굣길 학생들이다. 이 숨 막히는 도심에서 매일 산을 넘어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다니 놀랍지 않는가. 양산동이나 일곡 지구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고개 너머 자리한 S중·고등학교에 다닌다. 중학생들은 끼리끼리, 고등학생은 듬직한 표정으로 생활복에 백팩을 메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오질 수가 없다. "얼마나 힘든가?, 아이고 훌륭하네, 세상에나 대단하다, 몇 년이나 넘어 다닌가" 산을 넘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온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이 학생들의 부모들이다. 시간 아깝고, 몸 피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넘는 등굣길을 지지해 준 부모들의 건강한 성원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

어느 TV에서 방송한 '세상에서 가장 험한 등굣길'을 관심 있게 봤다. 단순한 주제인데 소재 발굴은 세계적이다.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의 등굣길에서 얼음, 눈, 협곡, 강, 추위, 독충 등 그들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다양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과 아이들의 초롱한 눈빛이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방송에 끌렸던 것은 각자 간직한 유년의 기억 때문이 아닐까.

나는 60년대에 고흥 어느 면소재지 국민학교(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마을에서 학교까지는 시오 리 길이었다. 약 6㎞. 그러니 하루 등하굣길이 삼십 리였다. 시계가 없어 앞산에 뜨는 해의 높이로 지각 여부를 가늠하여 발걸음을 조절했다. 큰 산을 넘고, 저수지를 끼고 가다가 다시 까끔(야트막한 산, 방언) 하나를 더 넘어서야 학교가 보였다. 측백나무 울타리에 벚나무로 둘러싸인 학교는 팔영산을 마주한 남도 끝자락 희망의 전당이었다. 개교(1919년)한 지 백년이 되었고, 한때는 2부제 수업으로도 학생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본교를 중심으로 동, 서, 북에 세 분교까지 있었으나 이제는 딸랑딸랑 필통 소리와 책보에 번진 김칫국물의 추억만 남긴 채 소규모 학교가 되었다.

여러 사연으로 나이 차이가 있는 동창이 많았다. 여덟 살이 되어도 마을 이장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입학식 날 산에 땔나무를 하러 가버리면 그만이었다. 동네 형들을 따라 멋모르고 학교에 간 일곱 살짜리는 입학이었다. 윗니와 아랫니가 쫀득하게 달라붙는 원조 물자 분유와 노릇한 사각 옥수수빵. 이어지는 배탈의 그 시절. 6년 동안 30㎞ 안팎의 몸으로 삼십 리를 왕복한 힘은 학교가 모두의 미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사고 재지정을 비롯한 여러 교육 현안들로 학생들의 등굣길이 심란하다. 자녀의 등굣길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측과 누구나 평등한 등굣길이 되기를 바라는 시각이 혼재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대입 제도를 건들지 않고는 여러 유형의 학교도 한때의 시범 학교일 뿐이다. 대학이 가르치는 경쟁을 해야지 모집 경쟁을 해서는 초·중 학생들의 등굣길은 계속 무겁고 험난할 것이다.

기 고

대한민국을 구할 혁신 도시 시즌2

이 민 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별위원장
광주대 교수

한국에서 근래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의 실체는 지방 열 곳에 탄생한 혁신 도시다. 혁신 도시 마다 지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전략 분야를 선정해 공공기관을 입지시켰다. 이 공공 기관과 지역 대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새로운 산업에 실험적으로 도전할 기업을 양성하고 이끌어오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앞으로 공공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선도하고 다른 지역에 전파해야 한다. 재벌을 대체하는 혁신 기업, 수도권을 대체하는 혁신 공간의 마련이 혁신 도시의 사명이다. 마침내는 모방 경제의 한계에 붙들려 있는 대한민국의 플랜B가 될 것이다.

이 사명은 그 달성이 쉽지 않다. 재벌 경제와 수도권 중심 경제의 희석이 어렵고, 혁신에 요구되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도 부족하여 그렇다. 그렇기에 혁신 도시 완성을 지체시키고 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환경의 극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첫째, 혁신 도시 완성의 과제를 숙고하자. 혁신 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 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원활한 지역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혁신 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공동 발전 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혁신도시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하는 방안을 숙고하자. 재벌 위주의 수도권 투자를 대체할 비수도권의 혁신 기업 육성책, 수도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구하는 새로운 계획인 플랜B는 무엇인가? 공공 기관이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창출하여 선도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에 대한 답으로 혁신 도시 시즌2를 '혁신 도시 종합 발전 계획'에 담아 발표하였다. 혁신 도시 내 각 주체들의 상황, 혁신 도시 진척의 장애물 극복, 혁신 경제로의 전환 방안, 혁신 도시의 필요성, 혁신 도시에 갖추어야 할 내용, 혁신 도시 완성 방법론, 차세대 혁신 도시의 방향 등을 모두 반영하여 혁신 도시 시즌2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첫 번째 비전은 기업 지원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 도시별 특화 발전이며, 두 번째 비전은 삶의 질을 개선할 제반 여건 완비를 통한 정주 환경 조성이며, 세 번째 비전은 원도심 지원을 통한 상생 발전이다.

이 계획에는 전국의 열 개 혁신 도시마다 역량과 지역의 요구 사항을 대비하여 시즌2에서 집중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찾아내고 과제 수행 후의 혁신 도시 모습이 담겨있다. 새로운 산업 혁명이 일어날 도시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존 산업 단지와 혁신 도시를 연결할 방안 등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다. 이전 공공 기관의 사업 분야를 4차 산업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할 기반 시설 구축과 제도적 지원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계획, 스마트 시티 추진 계획, 원도심 재생 계획, 지역 대학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이 혁신 도시의 비약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리고 혁신 도시 컨트롤 타워인 혁신 도시 발전 재단을 설치하여 혁신 도시 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해나가도록 하였다.

물론 정부는 이번 계획을 향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갈 것이다. 첫째, 혁신 도시 내부 자원의 질적, 양적 수준 제고에 더하여 주변의 광역 도시권, 산업 단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국토 전체에 획기적인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둘째, 공공 기관 추가 이전 등으로 혁신 도시 자체의 힘을 강하게 키운 후에 전국을 혁신 벨트로 엮는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혁신 도시 시즌2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정부와 국회의 획기적 노력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국비 투입의 효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무턱대고 국비 요청만 하지 말고 지방의 역량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사업만을 국비로 요청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 넷째, 혁신 도시 시즌2를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로 '혁신 도시 발전 재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만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다하려면 동 재단의 관할 범위와 권한이 '행정청'에 버금가야 한다. 기업유치, 도시의 발전 및 관리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해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려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혁신 도시의 미래는 결국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모습이다. 특히 중앙 정부 주도로 허허벌판에 만들어졌기에 정책 환경의 변화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 도시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면 혁신 도시 중 바람직한 모습은 죽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만 살아남을 것이다. 중앙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한다.

하지만 혁신 도시의 완성은 지역 내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지자체와 공공 기관, 기업, 대학, 주민 등의 헌신이 절실하다. 특히 지방비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자체의 더 각별한 관심을 기대한다.

社 說

수영대회 경기 중단 소동 다신 이런 일 없도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기 운영 미숙이 대회 초반부터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일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잠시 경기가 중단된 것이다. 이날 오전 남자 1m 스프링보드 예선. 프랑스 선수가 2차시기를 위해 보드에 올라섰을 때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다. 경기장은 술렁거렸고 관중들은 소방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물으며 우왕좌왕했다. 곧바로 화재 경보가 꺼지면서 경기는 재개됐지만 소동을 겪은 프랑스 선수는 32위에 그치면서 결선 진출 자격을 얻지 못했다.

대회 운영 미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시범경기인 비치수구의 경우, 경기 당일 일정이 변경되어 경기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경기 세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비치수구는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1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네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기 당일인 이날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돼 모든 경기 시작 시간이 한 시간씩 앞당겨진 것이다. 일정이 변경됐지만 사전 통보나 안내는 없었다. 심지어 안내요원들조차 경기 일정이 변경 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경기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경기를 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대회 관계자는 "FINA(국제수영연맹)로부터 경기가 열리는 13일 당일에야 경기시간을 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경보에 대해 불꽃감지기 내 이물질이 유입돼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재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은 것은 조직위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세계수영대회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日 수출 규제 따른 지역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일본이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를 면제해 주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규제 품목이 대폭 확대되면 지역 주력 업종은 물론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경우 광주·전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반도체 생산 업체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한 곳뿐인 데다 규제 품목도 생산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조만간 전략 물자 수출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모두 1100개 품목에서 일본산 소재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가 수출 규제 품목에 추가되면 자동차와 석유 화학, 전자 부품과 공작 기계 등 지역 주력 업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들 분야의 기초 소재가 일본에서 장기간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지역 주요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초 소재의 기술력은 일본에 비해 10~20년이나 뒤처질 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및 경제계는 수출 규제가 지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큰 소재 부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가 심의 중인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외교적 해법 모색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달 착륙 50주년

1969년 7월 21일 오전 11시56분20초(한국시간), 아폴로 11호 달착륙선 이글(독수리)호가 달 표면에 내려앉았다. 지구를 출발한 지 102시간45분42초 만이었다. 착륙선에는 선장 닐 암스트롱과 조종사 에드윈 올드린 두 우주인이 탑승하고 있었다. 착륙선이 모선에서 분리돼 하강하자 닐 암스트롱의 맥박이 평상시 분당 70~75 수준에서 110으로 뛰어올랐다. 착륙 당시 그의 맥박은 156이었다.

닐 암스트롱은 착륙선 해치를 연 후 아홉 계단의 사다리를 딛고 마침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당시 신문을 들춰 보면 어린이들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는데 우주인들이 무서워 도망가 버렸나요?"라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969년 7월 21일자)

인간이 달에 첫발을 디딘 지 50년이 됐다. 아마도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없었다면 인류의 과학과 문명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달이 있음으로 해서 시와 소설 등 문학 작품이 쏟아졌고, 매일 위상(位相)을 달리하고 일식과 월식 현상으로 천문학도 한층 발달했을 것이다. 프랑스 장 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 '불을 찾아서'(Quest For Fire, 1981년 작)는 남녀 주인공이 달을 가만히 바라보며 끝을 맺는다. 영화 속 석기시대나 지금이나 인류가 달에 대해 갖는 호기심은 여전하다.

비록 우리는 달에 가 볼 수 없지만 자녀들과 함께 곡성, 장흥, 순천 등지의 시민천문대를 찾아 천체망원경으로 달 크레이터(분화구)를 보며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지금도 인류의 달 착륙이 가짜라고 하는 음모론을 믿는 이들이 있다. 달 표면에 다시 인간이 발을 딛는 장쾌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추신: 제헌절인 오는 17일 새벽에 달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진행된다. 오전 5시 1분에 가려지기 시작해 오전 6시 30분에 최대식(66%)에 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전 5시30분에 달이 서쪽 지평선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측은 어렵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